

“Miserando atque Eligendo”

사랑하는 회개의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캔사스주의 캔사스시의 Savior Pastoral Center에서 국가형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저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Miserando atque Eligendo”라고 말했습니다. 이 라틴어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택하신 새 교황 프란치스코의 문장 밑에 있는 교황의 좌우명입니다. 이 좌우명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교황님께 매우 중요한 말이므로, 프란치스코 성인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Miserando atque Eligendo”는 성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9월 21일)의 복음에 나오는 마태오의 부름을 가지고 베다 성인이 하신 강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전체의 라틴말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시고 자비롭게 쳐다보셨다 (또는 자비의 눈으로 쳐다보셨다, 또는 교황님이 번역하셨듯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miserando) 그리고 (atque) 그를 선택하시어 (eligendo),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다 성인의 강론에서 주님의 자비에 대하여 묵상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오(주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부르실 때 세리와 죄인을 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도와 복음사가가 될수있는 마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다 성인은 마태오가 하느님께 응답하자 “수많은 죄인들이 마태오의 뒤를 따라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좌우명을 인용한 ZENIT 뉴스에 의하면 17 세의 호르헤 베르고글리오(Jorge Bergoglio)가 고해성사를 본후에 “자신의 삶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경험했고... 하느님이 베푸신 자비에 감동을 받았으며, 하느님은 커다란 사랑으로 그를 수도생활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http://www.zenit.org/en/articles/popes-motto-miserando-atque-eligendo>)

호르헤 베르고글리오가 새 교황이 된 후, 교황은 인터뷰(“A Big Heart Open to God” <http://www.americamagazine.org/pope-interview>) 에서 자신의 회개와 로마에 걸려있는 Caravaggio 의 아름다운 그림 “마태오 성인을 부르심”을 비교하면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이 되어 처음 한 일들은 마태오 성인처럼 죄인들을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황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주님의 자비를 받았고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도록” (에페 1,4) 선택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마 우리의 부모님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시어, 세례 성사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선택하시어 우리들이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으로 종신서약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어, 미사때에 성체와 성혈, 성령과 신성을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은총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택할 때마다 (주님의 큰 은총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복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선택하시어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같은 회개가 우리 재속프란치스코 회원들이 매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야하는 회개입니다. (회칙 제 7 조)

여러분은 얼마전 연중 24 주일의 루가복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세가지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루가 15,1-32)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사순 4 주일의 복음으로 나오므로, 여기서는 되찾은 양과 은전의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은 스스로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잃어버린 양도 스스로 되찾아올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오의 경우에서 보듯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이나 행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선택하시는 (miserando atque eligendo)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항상 찾으시고, 항상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자신을 찾으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17 세의 어린 죄인 호르헤 베르고글리오가 그랬듯이, 아직도 죄인인 오늘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죄안에서 주님의 자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릅니다. 어떻게하면 주님을 잘 따를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신대로 하면 됩니다. 마태오 복음의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고 말씀하십니다. 또 평지의 설교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가 6,36)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완전하심에 가장 가까이 갈수있는 길은 아마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자비와 선택 (miserando atque eligendo)을 베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의에 차고, 때로는 무자비한 이 세상의 새 복음화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중에서도 가장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로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신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말입니다. 10 월 19 일 토요일, 총회를 마치면서, 국가형제회에서는 2014 년 의 주제를 “자비로운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십시오 (Be the Merciful Presence of God)” 으로 결정하였는데, 이 주제의 한 해석이 새 복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제와, 교황의 좌우명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비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다.

주님의 평화와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Tom Bello



Miserando atque Eligendo